GCF 사무국 지도부 바통 교체

2016.8.29, 송도 - 하비에 만자나레스(Javier Manzanares)가 GCF 사무국 임시 사무총장을 맡게 되었다. GCF 최고재무책임자(CFO) 만자나레스는 6월 GCF 이사회에서 임시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현 GCF 사무총장 헬라 쉬흐로흐(Hela Cheikhrouhou)가 임기를 마무리한 후 신임 사무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자리를 대신한다.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후변화에관한협약(UNFCCC)하에서 설립된 기구로 개발도상국에서 기후회복력 있고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까지 GCF는 100억 불 이상에 달하는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4억2천4백만 불을 사업에 투자했다. 이웬 맥도널드(Ewen McDonald), 자히르 파키르(Zaheer Fakir) GCF 공동이사는 쉬흐로흐 사무총장이 튀니지 정부 에너지·광업·재생에너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며, GCF 이사회를 대신하여 앞날의 발전을 빌어주었다. 만자나레스 임시 사무총장은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선임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GCF를 이끈다.

※ 출처= http://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38417/release_GCF_2016_08_29.pdf/c2af2606-1a49-42dd-93ab-e2b824310beb